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과 배드민턴 동호인의 경기력 관계: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남윤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Sports Leader's Leadership Style and Badminton Club Member's Performance: A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Yoon Ho Nam

Instruct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 유형과 동호인의 경기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동호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최종 5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도자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 권위적행동, 사회적행동이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지도자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권위적행동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셋째, 지도자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생활체육 지도자리더십 및 지도 유형에 대한 방향을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생활스포츠지도자, 배드민턴동호인, 지도자리더십, 경기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style of badminton life sports leaders and the performance of club members. A total of 600 badminton club memb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and 593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result section, first, it was found that training instruction behavior, authoritative behavior, and social behavior, which are sub-factors of the leader leadership type,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p < .05$). Second, it was found that training instruction behavior, which is a sub-factor of leader leadership type,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p < .01$), and that authoritarian behavior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fficacy($p < .01$).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found indirect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leadership and performance($p < .001$).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easier to build a more effective training system if the direction for the leadership and guidance type of life sports is set by reflecting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Key Words : Life sports leader, Badminton club member, Leader leadership, Performance,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Yoon Ho Nam(colokate07@gmail.com)

Received September 5,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1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최근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생활체육의 참여율은 62.2%로 2017년 참여율인 59.2%보다 3%정도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현대인의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 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선호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보디빌딩, 등산, 수영, 배드민턴으로 확인되었다[1]. 배드민턴의 경우 2017년 전국 클럽수가 4,923개, 동호인 수 264,565으로 전국 생활스포츠 동호회 중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

이와 같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배드민턴은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실내코트인 경우 언제나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다[3].

하지만 배드민턴이 많은 관심과 인기가 높은 만큼 엘리트 수준의 동호인 선수 사이에서 입문하는 동호인이나 실력 향상을 원하는 동호인들은 체계적인 배드민턴 강습을 받기를 원한다. 이때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능력 및 리더십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선수를 지도하기 위한 리더십과 다르게 생활체육 지도자는 개인의 역량 향상과 함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한 문제해결과 개인의 목표달성과 흥미유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단점보완과 강점을 개발하는 지도자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4,5].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 리더십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영향을 가져다주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6].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유형은 경기와 관련하여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는 결과지향적이고 지도과정에서 체계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7]. 즉,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역량에 따라 선수의 잠재력 발휘 및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목표달성과 최상의 운동수행 경험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자 선수들의 역량 발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은 선수의 경기력, 동기부여, 운동몰입, 자기효능감, 선수만족, 운동지속,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11].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소통과 각 종목에서의 적절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도를 받는 동호인 선수들과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도 운동수행과 많은 연관이 있고 동호인 선수들의 경기력과 운동에 대한 만족, 자기효능감 등과도 밀접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은 소극적 기능으로서의 단순한 휴식 및 기분전환이 아닌 신체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개인의 신체능력을 개발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 본연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12]. 이러한 여가활동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한 만족은 행복감은 물론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를 가져오게 된다.

배드민턴 종목은 다른 생활스포츠 종목보다 동호인 활동이 활발하고 경기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5]. 배드민턴 참여자의 계층과 특성이 다양화되고, 많은 클럽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엘리트 수준의 실력도 갖추었다고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엘리트 선수들과 지도자와의 관계에서의 경기력과 선수의 심리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스포츠 현장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측정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력 수준이 높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 유형에 따른 경기력 관계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참여를 통한 만족의 결과로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개인마다 목표달성시 긍정적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13]. 이처럼 여가시간은 신체활동으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4]. Chen, Gully & Eden[15]은 다양한 환경의 성취상황에서 경기력 및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운동 참여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6]. 또한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운동참여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지속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7,1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배드민턴 지도자와 동호인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원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리더십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리더십의 방향제시, 지도방법 및 관계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동호인들의 경기력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 유형과 동호인들의 경기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 방식 개선 및 강습자를 위해 가장 적절한 지도법을 찾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시, A시에 거주하는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동호인 60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2월~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93명의 설문지가 결과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Categories		n (593)	% (100)
Gender	Male	272	45.9
	Female	321	54.1
Age	20s	102	17.2
	30s	124	20.9
	40s	198	33.4
	50s	142	23.9
	≥60s	27	4.6
Participation duration	1-2 years	52	8.8
	2-3 years	68	11.5
	3-4 years	96	16.2
	4-5 years	66	11.1
	≥5 years	311	52.4
Participation frequency	1 days a week	31	5.2
	2 days a week	90	15.2
	3 days a week	223	37.6
	4 days a week	140	23.6
	≥5 days a week	109	18.4

2.2 조사도구

2.2.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정도, 리더십 유형 문항, 경기력 관련 문항, 자기효능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과 문항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Overview of Questionnaire Profile

Factor	Content	Questio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2	
Participation Degree	Participation Duration Participation Frequency	2	
Leadership	Training Instructions Democratic Authoritative Social Support Positive Feedback	7 7 7 6 6	33
Performance	Performance	7	
Self-Efficacy	Self-Efficacy	14	

2.2.2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사용한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방법과 회전은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의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적합성 검증은 Battlett 구형성 검증과 KMO(Kaiser-Meyer-Olkon) 지수로 알아보았다.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4 이상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 문항을 추출하였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eadership scale

Question	Factor loading				
	Training Instructions	Democratic	Authoritative	Social Support	Positive Feedback
L1	.764	.180	-.162	.115	.184
L2	.782	.168	-.124	.110	.177
L3	.782	.248	-.123	.172	.097
L4	.653	.281	.001	.213	.077
L8	.235	.728	-.039	.232	.102
L9	.090	.774	-.036	.249	.131
L10	.102	.775	-.127	.272	.140
L11	.129	.729	-.163	.266	.218
L12	.142	.617	.044	.196	.192
L13	.192	.671	-.174	.209	.192
L14	.208	.562	-.112	.232	.127
L15	-.050	-.035	.718	-.129	.074
L16	-.113	-.209	.707	-.092	.081
L17	-.149	-.095	.781	-.099	-.002
L18	-.042	-.020	.743	-.091	-.157
L19	-.075	-.032	.763	.071	-.230
L20	-.029	-.073	.797	-.045	-.211
L21	-.050	-.088	.717	-.170	-.097
L22	.215	.270	-.099	.647	.239
L23	.163	.392	-.065	.703	.120
L24	.078	.283	-.153	.747	.178
L25	.239	.232	-.284	.597	.350
L26	.256	.399	-.172	.586	.263
L27	.185	.306	-.188	.642	.297
L28	.093	.196	-.105	.263	.787
L29	.107	.234	-.069	.184	.811
L30	.159	.202	-.114	.174	.840
L31	.180	.173	-.161	.142	.757
L32	.091	.185	-.042	.285	.736
L33	.080	.347	-.008	.265	.512
Eigenvalue	1.180	12.412	3.480	1.684	2.341
% of Variance	3.575	37.612	10.545	5.13	7.093
Cumulative %	63.928	37.612	48.156	60.353	55.250
Cronbach's a	.886	.836	.915	.899	.881

2.2.2.1 리더십 척도

본 연구의 리더십 척도는 Chelladurai와 Carron[19]가 개발한 지도자 리더십 척도 문항을 정용각과 오성기[20]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33문항을 사용하였다.

리더십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의 부하량이 .4보다 낮거나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문항인 리더십 5, 6, 7 문항을 제외하고 훈련지시행동 4문항, 민주적행동 7문항, 권위적행동 7문항, 사회적행동 6문항, 긍정적 보상행동 6문항 총 30문항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훈련지시행동은 .886, 민주적행동은 .836, 권위적행동은 .915, 사회적 행동은 .899, 긍정적 보상행동은 .881로 충분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2.2.2.2 경기력 척도

본 연구의 경기력 척도는 Fiedler와 Billo[21]가 개발한 경기력 척도를 Cho[22]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경기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부하량이 .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경기력 1번 문항을 제외하고 단일요인 최종 6문항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868로 관측되어 충분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formance scale

Question	Factor loading
P 2	.605
P 3	.666
P 4	.582
P 5	.737
P 6	.528
P 7	.443
Eigenvalue	3.911
% of Variance	55.873
Cumulative %	55.873
Cronbach's a	.868

2.2.2.3 자기효능감 척도

설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경기력 설문지는 Kim[23]이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Hong & Pyo[24]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부하량이 .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6, 7, 9, 14 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자기효능감 관련문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879로 관측되어 충분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Table 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lf-Efficacy scale

Question	Factor loading
SE 1	0.743
SE 2	0.627
SE 3	0.794
SE 4	0.745
SE 5	0.766
SE 8	0.592
SE 9	0.040
SE 10	0.625
SE 11	0.671
SE 12	0.673
SE 13	0.661
Eigenvalue	4.909
% of Variance	35.065
Cumulative %	3.5065
Cronbach's α	.879

2.3 자료처리

본 연구는 SPSS 25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알아보았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 리더십유형, 경기력,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Baron &

Kenny[25]의 3단계 매개효과 과정으로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도자 리더십유형, 경기력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의 지도자 리더십유형, 경기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Variables	Leadership				6	7
	2	3	4	5		
1	.618*	-.270*	.525*	.399*	.298*	.246*
2	1	-.297*	.735*	.520*	.348*	.244*
3		1	-.345*	-.271*	-.072	.006
4			1	.616*	.399*	.245*
5				1	.301*	.203*
6					1	.501*

-Leadership: 1)Training Instructions, 2)Democratic, 3)Authoritative, 4)Social Support, 5)Positive Feedback
 - 6) Performance
 - 7) Self-Efficacy
 * $p < .05$

지도자 리더십유형의 훈련지시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긍정적 보상행동은 경기력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리더십유형의 권위적행동은 경기력에서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리더십유형의 권위적행동은 리더십유형의 훈련지시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긍정적 보상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경기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3.2.1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eadership & Performance

Target Propensity	Leadership	B	SE	β	t	p
Performance	(Constant)	1.695	.206		8.209	.001
	Training Instructions	.100	.046	.104	2.166	.031
	Democratic	.063	.058	.065	1.074	.280
	Authoritative	.083	.036	.093	2.327	.020
	Social support	.246	.053	.282	4.612	.001
	Positive Feedback	.068	.042	.077	1.602	.110
	$R=.427, R^2=.182, F=26.189(p=.001)$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식 적합도는 리더십유형과 경기력($F=26.18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8.2%($R^2=.182$)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훈련지시행동($\beta=.104, t=2.166, p=.031$), 권위적행동($\beta=.093, t=2.327, p=.020$), 사회적행동($\beta=.282, t=4.612, p=.001$)이 경기력 요인과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eadership & Self-Efficacy

Target Propensity	Leadership	B	SE	β	t	p
Self-Efficacy	(Constant)	1.893	.189		9.989	.001
	Training Instructions	.125	.042	.149	2.946	.003
	Democratic	.055	.053	.065	1.026	.305
	Authoritative	-.098	.033	-.126	-2.983	.003
	Social support	.091	.049	.119	1.857	.064
	Positive Feedback	.054	.039	.070	1.394	.164
	$R=.311, R^2=.097, F=12.586(p=.001)$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식 적합도는 리더십유형과 경기력($F=12.586, p=.001$)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9.7%($R^2=.097$)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훈련지시행동($\beta=.149, t=2.946, p=.003$)은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적행동($\beta=-.126, t=-2.983, p=.003$)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지도자 리더십유형과 경기력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인지하는 지도자 리더십유형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Baron & Kenny[25]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Table 9. Mediated Effect vi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Y)		
		step1 (Independent →Dependent)	step2 (Independent →Mediating)	step3 (Independent /Mediating→ Dependent)
Independent (bX)	B (SE)	.595 (.060)	.646 (.055)	.404 (.064)
	β	.389	.448	.264
Mediating (M)	B (SE)			.297 (.064)
	β			.280

1단계에서 독립변인(bX)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종속변인(Y) 경기력에 유의한 정적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59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bX) 내적동기가 매개변인(M)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인(+의 영향($B=.64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 1, 2단계가 충족되었다. 다음 3단계는 독립변인(bX)과 매개변인(M)이 동시 투입으로 종속변인(Y)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B=.404, p<.001; B=.297, p<.001$)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충족되었다.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 비해 회귀계수의 영향력(1단계=.595, 3단계=.404)이 감소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을 Sobel Z-test로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는 $Z=4.7614(p<.05)$ 로 $|Z| > 1.96$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총효과(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총효과 .595, 직접효과 .404, 간접효과 $.646 \times .297 = .191$ 로 총효과는 직접효과+간접효과($.404 + .191 = .595$)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유형에 따른 동호인의 경기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리더십유형과 경기력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동호인 참여자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 권위적행동, 사회적행동이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동호인 참여자가 지각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경기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훈련지시행동은 참여자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훈련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26], Smith[27]의 연구에서 참여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의 사회적지시행동은 지도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동 참여시 활기차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며 동기유발 및 참여를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28,29]. 따라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는 참여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향상과 함께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참여의도를 높여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동호인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적행동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원들은 지도자의 훈련지시를 통해 원하는 경험과 목적달성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권위적인 지도자의 행동은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한 만족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30,31].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은 선수 및 참여자의 의욕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29].

배드민턴은 생활스포츠 지도자와 동호인 선수간의 장기간 관계를 이어가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항상 관심과 격려로 지지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통한 기술 및 전문성만을 강조하기 보다 생활스포츠 참여로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불안 완화, 스트레스 해소,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행복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는 동호인 참여자들의 개인적 욕구와 목표달성 및 건강한 여가활동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실현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경기력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권위적인 지도자 행동보다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훈련지시행동과 사회적지시행동 등의 긍정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참여자의 경기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도자 리더십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연구결과들과[32-34] 지도자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이는 생활스포츠 활동의 지속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능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35-37]. 이는 종목을 불문하고 지도자 리더십 유형이 선수와의 관계,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심리적 변인 및 운동수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생활스포츠 종목이든 지도자는 경기력 및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의 실력향상뿐만 아니라 참여지속을 위한 흥미유발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지도한다는 Chelladurai & Reimer[38]의 연구 내용과 맥락이 같으며, 앞으로 급변하는 여가활동 분야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자 리더십 유형에 대해 수시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함에 따라 생활스포츠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의 확대와 생활스포츠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생활스포츠 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과 경기력,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차후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추후 배드민턴과 생활스포츠 지도자 전반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동호인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동호인을 대상으로 동호인들이 지각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과 경기력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도출한 결과와 논의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동호인 참여자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 권위적행동, 사회적행동이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생활스포츠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동호인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십유형 하위요인인 훈련지시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적행동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경기력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생활스포츠 배드민턴 현장을

비롯한 생활스포츠 전반적인 종목에서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사회와 여가활동 현장의 실정을 수용하고 발전을 위해 종목에 관계 없이 생활체육 지도자 리더십 유형 파악과 지도 유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생활스포츠 종목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로 한정하였으므로 생활스포츠 타 종목 전반에 일반화하기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타 종목의 동호인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시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생활스포츠 배드민턴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참여자들의 경기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유형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 [3] M. Kim & J. Yoo. (2013). Badminton Training Impact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ul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2(5), 449-463.
- [4] H. J. Sung & J. Tak. (2017). The Effect of Coaching Leadership on Creative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0(3), 373-391. DOI : 10.24230/ksiop.30.3.201708.373
- [5] J. Park & B. Yoon.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Coaching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1(1), 373-398
- [6] J. N. Jung & K. R. Oh. (2018). H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participants, in swimming,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7(2), 335-344.

- DOI : 10.35159/kjss.2018.06.27.2.335
- [7] J. Greene & A. M. Grant. (2003). Solution-focused coaching: Managing people in a complex world. *Pearson Education*.
- [8] D. Kim & J. Jang. (2019). The Effect of Leadership Behavior Type of Soccer Leader on Players' Exercise Commitment and Team Cohes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3), 143-157
DOI : 10.22143/HSS21.10.3.11.
- [9] H. Cha, T. Kim & S. Mun. (2015). The Influence of Types of Dance Sports Instructors on Exercise Commitment, Exercise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2, 497-507.
DOI : 10.51979/KSSLS.2015.11.62.497
- [10] Y. Kim & E. H. Jung. (2016). Effect of Types of Badminton Coaches on Players' life Satisfaction, and Commitment Sustained Exercis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4(4), 637-646.
- [11] I. Lee. (2015). The Effect of Coaching Leadership of Fencing Coaches on the Exercise Commitment and Player Satisfaction of Fencing Player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3(2), 89-98.
- [12] K. O. Lee. (2010). The influence of leisure commitment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aged.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9(6), 117-133.
- [13] S. Moon & S. Park.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Experiences,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People. *Tourism Research*, 43(4), 45-70.
DOI : 10.32780/ktidoi.2018.43.4.45
- [14] E. McAuley & D. Gil. (198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hysical self-efficacy scale in a competitive sport setting.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5(4), 410-418.
DOI : 10.1123/jsp.5.4.410
- [15] G. Chen, S. M. Gully & D. Eden.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DOI : 10.1177/109442810141004
- [16] A. Bandura. (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12), 1389-1391.
DOI : 10.1037/0003-066X.41.12.1389
- [17] H. Lee. (2011). Relation Amo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5), 309-323.
- [18] Y. Cho & Y. Choi. (2016).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arents, Self-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by Secondary School Judo Players Perceiv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5(4), 833-845.
- [19] P. Chelladurai & A. V. Carron. (1981). Applicability to youth sports of the leadership scale for spor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2), 361-362.
DOI : 10.2466/pms.1981.53.2.361
- [20] Y. Jung & S. Oh. (2003). Why People Running? :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Recreational Runn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4(1), 69-89.
- [21] F. E. Fiedler & M. W. Billo. (1973). *Correlates of performance in community collage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Washington.
- [22] B. S. Cho. (2010). The effect of leadership typ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charismatic, servant leadership) of mid-high school golf coaches on lead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ach Development*, 12(3), 83-92.
- [23] W. T. Kim (1997). *A Study on the Empowerment Process for Enhancing the Competency of Organizational Members*. Doctoral disseration, Sogang University.
- [24] S. O. Hong & N. S. Pyo. (1996). The Effect of Exercise Participation o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elf-Efficacy and the Change of Gender-Role Characteristic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7(1), 127-152.
- [25]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26] B. J. Kim. (2017). *The Effect of Rugby Coach's Leadership Style on Sports-Confidence and Match Performance Ability*. Master's dissertation. Kunghee University, Yongin.
- [27] M. B. Smith, L. K. Bryan & S. J. Vodanovich. (2012). The counter-Intuitive effects of flow on positive leadership and employee attitudes: Incorporating positive psychology into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The Psychologist Manager Journal*, 15(3), 174-198.
DOI : 10.1080/10887156.2012.701129

- [28] S. K. Byun, J. S. Kim & H. R. Kim. (2018). Relationship among Mentoring of Leaders Perceived by Bowlers, Sports Confidence, and Exercise Flow.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6(4), 985-993.
- [29] D. J. Kim. (2015).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Burnout in Adolescent Taekwondo Athletes.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7(2), 61-75.
DOI : 10.35277/kama.2015.17.2.61.
- [30] J. Kim & I. Jung.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Journal*, 27(1), 111-126.
- [31] J. Park. (2015). The Influence of Leisure Competence and Flow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orse-riding Participants. *The Korea Society Of Sports Science*, 24(1), 235-248.
- [32] J. Y. Sin & K. H. Joung. (2016). A Research on the Teaching Method Classification and the Teaching Philosophy of Taekwondo Instructors. *Journal of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4(4), 637-646.
- [33] J. Kim, Y. Lee, K. Jang, J. Jung & J. Lee.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on Coaching Behaviors, Athlete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Sports Typ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iton*, 42(5), 231-238.
- [34] J. K. Park. (2003). Qualitative study on leadership of successful basketball coach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4(1), 59-77.
- [35] Y. Kim & Y. Kim.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in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6(1), 593-606.
- [36] J. Lee & Y. Cho. (2017). The Impa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their Continuance Willingness through Self-efficiency and Leadership living skill.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3), 429-458.
- [37] H. Lee. (2011). Relation Amo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5), 309-323.
- [38] P. Chelladurai & H. A. ReimerA. (1997). A classification of facets of athlet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DOI : 10.1123/jsm.11.2.133

남 윤 호(Yoon Ho Nam)

[정회원]



- 2021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코칭, 스포츠교육학
- E-Mail : colokate07@gmail.com